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“5G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협력주행 선도”

실제 도로환경 재현한 전용시험장서 국민체험단과 자율협력주행 직접 체험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5일(월)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‘케이-시티(K-City)’에서 열린 자율협력주행\* 시연행사에 참석하여, 5G 통신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.

\* 차량(단말기)과 인프라(기지국)이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자율주행

-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안전공단, SK텔레콤 등 관계자와 함께 다양한 나이·직업을 가진 국민 체험단 7명도 참석하여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를 시승하는 기회를 가졌다.
- 김 장관은 시승을 마친 후 “자율주행차가 최첨단 5G 통신기술과 결합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”이라 전망하고,
  - “K-City는 다양한 실제 도로환경\*뿐만 아니라 5G 통신시설도 설치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전용시험장으로 구축할 것”이며 연말까지 준공하여 국내외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.

\* 32만㎡ 규모로 고속도로, 도심, 교외, 커뮤니티, 주차시설 등 실제 환경을 재현

- 아울러, 김 장관은 “지난 2월 2일에 발표한 ‘자율주행 스마트교통 시스템 구축방안’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겠다”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.

2018. 2. 5.

국토교통부 대변인